

2019년 3월 26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 유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26%, 러셀 2000 지수 +0.46%

###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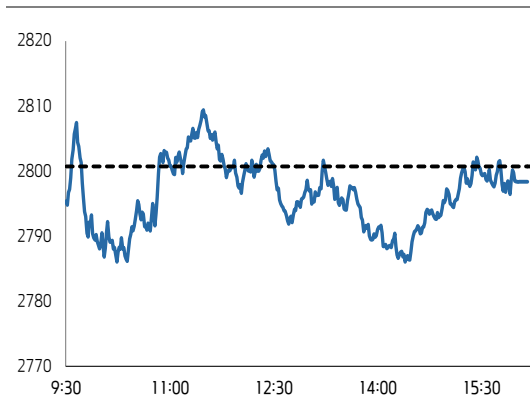
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한 때 상승 하기도 했으나, 반도체 등 기술주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다만,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일부 업종 위주로 반등에 성공하는 등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혼조 마감(다우 +0.06%, 나스닥 -0.07%, S&P500 -0.08%, 러셀 2000 +0.46%)

지난 주 금요일 독일의 제조업 PMI가 급락한 후 시장 참여자들은 국제 매수를 급증 시키며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 국제금리 하락을 야기. 특히 독일의 10년물 국제금리는 201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일본 국제와 같이 마이너스로 하락. 이 여파로 미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는 2% 내외 하락 했었으며, 오늘도 미국과 유럽 증시에 영향을 줌.

다만, 오늘 미 증시는 경기 침체 보다는 개별 기업 이슈 영향을 받아 등락을 보이는 '종목장세'로의 전환을 보임.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이 재고조정을 언급 했으나, 주요 경쟁사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재고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매물 출회. 더불어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 대해 번스타인이 "하반기 산업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이다" 라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6% 하락.

한편,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자 금융주가 부진 했으며, 애플은 스트리밍 서비스 및 애플 카드 등을 서비스 부문을 발표했으나 부진. 그러나 모기지금리 하락 기대감이 높아지자 건설 및 일부 소비재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지난 금요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투자심리 개선,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44.86	-1.92	홍콩항셱		28,523.35	-2.03
KOSDAQ		727.21	-2.25	영국		7,177.58	-0.42
DOW		25,516.83	+0.06	독일		11,346.65	-0.15
NASDAQ		7,637.54	-0.07	프랑스		5,260.64	-0.18
S&P 500		2,798.36	-0.08	스페인		9,179.90	-0.21
상하이종합		3,043.03	-1.97	그리스		708.24	-1.35
일본		20,977.11	-3.01	이탈리아		21,059.60	-0.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소비관련주 강세

마이크론(-2.57%)은 일부 경쟁사들의 비정상적인 재고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NVIDIA(-2.10%), 인텔(-0.90%), 아나로그디바이스(-2.00%), 자일링스(-2.18%) 등도 동반 하락 했다. 한편, 텍사스인스트루먼트(-2.34%)는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부진 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6% 하락 했다. 애플(-1.21%)은 스트리밍 서비스 및 애플 카드 등 서비스 부문 발표를 했으나, 획기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매출 출회되었다.

JP모건(-0.83%), BOA(-0.63%)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세가 이어지자 부진했다. 반면, 바이오젠(+1.64%)은 자사주 매입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으며, DR호튼(+2.52%), 레나르(+3.57%) 등 주택 건설 업체들은 모기지 금리 하락 기대에 힘입어 상승 했다. 홈디포(+0.49%), 로이어스(+1.03%) 등 홈 인테리어 업체들과 캐터필라(+1.24%), 디어(+0.89%) 등도 동반 상승 했다. 한편, TJX(+0.86%), 콜스(+2.54%), 메이시스(+2.36%) 등 백화점 업체 및 L브랜드(+2.62%) 를 비롯한 소비재 업종도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03%	대형 가치주 ETF(IVE)	-0.31%
에너지섹터 ETF(OIH)	-0.24%	중형 가치주 ETF(IWS)	+0.04%
소매업체 ETF(XRT)	+1.15%	소형 가치주 ETF(IWN)	+0.42%
금융섹터 ETF(XLF)	-0.39%	대형 성장주 ETF(VUG)	-0.03%
기술섹터 ETF(XLK)	-0.44%	중형 성장주 ETF(IWP)	-0.0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5%	소형 성장주 ETF(IWO)	+0.52%
인터넷업체 ETF(FDN)	+0.07%	배당주 ETF(DVY)	-0.01%
리츠업체 ETF(XLRE)	+0.0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7%
주택건설업체 ETF(XHB)	+1.3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4%
바이오섹터 ETF(IBB)	+0.14%	미국 국채 ETF(IEF)	+0.25%
헬스케어 ETF(XLV)	-0.06%	하이일드 ETF(JNK)	0.00%
곡물 ETF(DBA)	+0.42%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1.26%	Long/short ETF(BTAL)	+0.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4.83	-0.01%	-1.37%	+0.14%
소재	339.78	-0.16%	-2.33%	-3.32%
산업재	616.31	+0.24%	-2.13%	-4.05%
경기소비재	889.79	+0.56%	+0.67%	+2.16%
필수소비재	571.15	-0.01%	+0.43%	+2.36%
헬스케어	1,048.70	-0.07%	-1.42%	-2.04%
금융	419.44	-0.39%	-6.18%	-4.67%
IT	1,281.66	-0.40%	-0.40%	+3.11%
커뮤니케이션	158.17	-0.19%	+0.56%	+2.44%
유틸리티	297.01	+0.12%	+0.96%	+3.68%
부동산	222.29	+0.06%	+1.50%	+3.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발 매수세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MSCI 신흥 지수 ETF 도 0.2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30 계약)에 힘입어 0.60pt 상승한 278.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1.5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도를 말해주는 Ifo 기업환경지수가 전월(98.7)는 물론 예상치(98.6)을 상회한 99.6 으로 발표되었다. 지난 금요일 독일 제조업 PMI 부진 여파로 독일 10 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였으나, 이런 양호한 독일 경제지표 결과는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더불어 미 증시가 중 소형 종목을 비롯해 일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반등에 성공한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가 한 때 2.4%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축소된 점,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한 점, 국제유가를 비롯한 상품시장도 반등을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 다만,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고, 달러화가 브렉시트 이슈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부담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경제지표 부진

2 월 시카고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25)나 예상치(+0.10) 보다 부진한 -0.29 로 발표되었다. 3 개월 평균 또한 전월(0.00) 보다 둔화된 -0.18 로 발표되어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3 월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13.1)이나 예상치(9.8)을 하회한 8.3 으로 발표되었다. 생산지수는 전월(10.1) 보다 개선된 11.5 로 발표되었으며, 고용지수 등도 개선 되었다. 다만, 신규주주가 전월(6.9) 보다 둔화된 2.4 로 발표되었다.

3 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전월(98.5) 보다 개선된 99.6 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여건지수 (103.6→103.8), 기대 지수(94.0→95.6) 모두 전월 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

국제유가는 경기 둔화 우려와 달러 강세 여파로 장 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 후반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낙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독일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일부 지표 결과도 낙폭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최근 공급 감소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유가 하락 제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점 또한 하락 제한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장 초반 유로화 강세 영향을 받아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영국의 메이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받지 못해 26 일 의회 표결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발표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그러나 독일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자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엔화 또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되며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 여파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2.4%를 하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주가지수가 상승 전환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단기물은 낙폭이 컸으며, 일부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망한다.

금은 국채금리 하락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3% 상승 했으나, 철근은 0.5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82	-0.37	-0.94	Dollar Index	96.540	-0.11	+0.02
브렌트유	67.21	+0.27	-0.49	EUR/USD	1.1312	+0.09	-0.22
금	1,329.00	+0.78	+1.63	USD/JPY	110.03	+0.10	-1.26
은	15.567	+1.04	+1.60	GBP/USD	1.3195	-0.11	-0.45
알루미늄	1,883.00	-1.05	-1.95	USD/CHF	0.9924	-0.12	-0.90
전기동	6,340.00	+0.44	-1.32	AUD/USD	0.7108	+0.35	+0.06
아연	2,832.00	+0.60	+1.83	USD/CAD	1.3407	-0.16	+0.55
옥수수	379.75	+0.40	+2.22	USD/BRL	3.8489	-1.47	+1.51
밀	469.50	+0.75	+2.79	USD/CNH	6.7179	-0.08	-0.04
대두	906.50	+0.30	+0.08	USD/KRW	1134.20	+0.36	+0.19
커피	94.25	+0.37	-2.68	USD/KRW NDF1M	1131.53	-0.26	+0.0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409	-3.01	-19.44	스페인	1.098	+3.00	-5.60
한국	1.895	-3.70	-10.20	포르투갈	1.289	+3.20	+3.10
일본	-0.084	-1.50	-4.90	그리스	3.757	+0.60	+2.60
독일	-0.028	-1.30	-11.10	이탈리아	2.500	+5.40	+4.70